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

5/30 월요일

아침의 누림

출 40:20-21

20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 덮개를 두었다.

21 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골 2:9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4:2, 23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계 21:3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출애굽기 25 장 22 절에 따르면, 이 궤는 ‘증거궤’라 불리었다. 출애굽기에서 증거는 율법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반포하신 율법을 자신의 증거로 여기신다.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내게 그 형제의 사진을 보여 준다면, 나는 그 형제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된다. 그 형제의 묘사인 그의 사진은 그 형제의 증거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4 장, 10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1 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창세기 1 장에서 그분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미움의 하나님이신지, 흑암의 하나님이신지 빛의 하나님이신지, ... 그분께서 거룩하신지 세속적이신지, 의로우신지 불의하신지를 알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진과 묘사를 갖게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주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율법을 자신의 증거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림, 즉 하나님에 대한 살아 있는 정의이시자 묘사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증거이시다.

성막도 증거막이라고 불리는데(출 38:21), 이것은 증거가 궤 속에 있고 궤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이다. ... 출애굽기에서 증거궤나 증거막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증거라는 말이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定義)로서의 율법을 가리킨다.

성막에는 많은 중요한 기구들이 있었다. 바깥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는 진설된 떡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으며, 성막의 가장 내부의 방인 지성소에는 궤가 있었다. ... 첫째 항목인 궤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출애굽기 40 장 2 절과 3 절은 궤가 성막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며, 40 장 20 절과 21 절은 그 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인 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온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다. 골로새서 2 장 9 절은 신격의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체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절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묘사되시고 정의되시며 설명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이시고 설명 이시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는 증거궤로 예표되신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성막의 중심이다. 지성소는 성막의 초점이며, 하나님의 거처의 중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하셨지만, 바깥뜰이나 성소에는 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거하셨다. 지성소 안에 있는 궤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중심을 상징한다(엡 2:21-22).

궤의 덮개는 히브리서 4 장 16 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바로 궤의 덮개 곧 은혜의 보좌 위에 거하셨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이었다. 구약에서 이것은 증거막 안에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것은 교회

안에 있다.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 곧 하나님의 거처이다.

궤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내용물을 상징한다 (딤후 3:15-16).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인 궤가 성막의 내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용이다. ... 교회는 내적으로, 단지 용어상으로는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4 장, 1019-1021,1023-10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4 장

5/31 화요일

아침의 누림

출 25:10-11

10 “그들이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되, 길이가 이 규빗 반, 너비가 일 규빗 반, 높이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

11 그것에 순금을 입히되 안과 밖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롬 3:25

25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롬 3:26

26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2:17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 9:4

4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요일 2:2

2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요일 4:19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언약궤는 시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시팀 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 혹은 기본적인 실질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체현이 되었다.

시팀 나무는 안팎이 다 금으로 입혀졌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스며들고 사람의 본성 위에 머물며, 그 결과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궤의 바깥만 금으로 입혀졌다면,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연결을 의미했을 것이다. 연합은 시팀 나무의 안팎이 다 금으로 입혀졌다는 사실로 상징된다. 시팀 나무는 두 층의 금 사이에 있었다. 이것이 연합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4 장, 1025-10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5 장 17 절은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되 ...”라고 말한다. 이 속죄 덮개(화해 덮개)는 궤의 뚜껑이었다. ...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에 대해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히 2:17). ...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다(요일 2:2, 4:10).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진정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화해 제물이시다. ... 로마서 3 장 25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해 장소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와 만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화해시키는 분이시자 화해 제물이시며, 화해 덮개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만나는 장소이다.

출애굽기 25 장 18 절은 “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처서 만들어 속죄 덮개 양쪽 끝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겔 10:18, 히 9:5). ... 그룹들이 화해 덮개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서 비추어 나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룹들은 덮개 위에 있으며 덮개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비추어 나오고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속죄를 위해 제단에서 흘러진 피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다가 궤의 덮개 곧 속죄 덮개 위에 뿌려졌다. …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금덮개는 핏빛으로 변했다. 속죄 덮개 위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었다. …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다.

사실상 궤의 덮개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의 시은좌만이 아니다. 궤의 덮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한 빛 비춤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구속이 있는 화해 장소이다.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곳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으며,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구속하시고 비추시는 분으로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신다.

화해 덮개는 또한 증거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실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증거궤의 기능은 덮개에 달려있다. … 궤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궤가 우리의 누림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6 장, 1043-1044, 1046, 1051, 1053-10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6-89 장

6/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민 10:35-36

35 궤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흠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36 궤가 설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삼상 4:3-4, 22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족속 앞에서 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합시다.”

4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들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22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수 3:3

3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거든, 여러분은 묵었던 곳을 떠나 진군하여 그 뒤를 따르십시오.”

출 40:38

38 이처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온 집이 보는 앞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금을 입힌 시땀 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는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언약궤는 성막의 안쪽 방인 지성소에 놓여서 성막의 중심이 되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러 오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는 충족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화목하고 조화될 수 있었다. 그곳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 유대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언약궤에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2 장, 21-2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미신적으로 강탈했다(삼상 4:1-8).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미신적으로 궤를 강탈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에게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 장로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합시다.”(삼상 4:3 하)라고 말했다. 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백성은 기뻐했으며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5 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를 신뢰했을 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여쭙었어야 했다. 그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 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어야 했다(수 6:2-4). 장로들은 여리고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락하여 하나님의 갈망이나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들의 상황은 여호수아의 때와 완전히 달랐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간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나이산에서부터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흠어지게 하십시오.”(민 10:35)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언약궤는 앞서서 여정을 인도했다. 언약궤의 움직임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그림이었다.

사무엘기상 4 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강탈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실 의도가 없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강탈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을 강탈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억지로 그들과 함께 나가시도록 그분께 강요하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번영과 건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강탈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경륜과 관련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저의 건강이나 번영이나 자녀나 일을 위해 여기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경륜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당신의 경륜을 위해 여전히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경륜을 보았고 또 주님께 나실인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저에게는 주님을 위해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로서, 저는 저에 관하여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의사를 통해서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을 것이다. 여기서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탈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4 장, 32-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4, 22 장

6/2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4:11

11 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계 3:19-20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삼상 4:21-22

21 그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다.

22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삼상 2:30b, 35

30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너의 집안과 너의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쁨부름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왕상 8:48

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렘 32:39

39 나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어리석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를 신뢰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닦힌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미신적으로 여호와와 그의 궤를 신뢰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마다 자주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았다(민 10:35, 수 6 장). 그러나 이때에는 그들의 상황이 올바르지 않았다.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극도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은 언약궤 자체를 빼앗기고 말았다(삼상 4:11 상).

잉태하여 막 해산하려고 하는 비느하스의 아내는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통이 시작되어 몸을 웅크리고서 아이를 낳았다(삼상 4:19-20).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가봇’(21 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음을 가리킨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 장, 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제사장 엘리의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로 가득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적들과 전투를 계속했다. 물론 그들은 패배했다(삼상 4:1-2). …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결코 패배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당했는데도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또 기꺼이 주님께 심판받거나 처리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궤의 능력에 관한 어떤 미신적인 태도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오용했다. 미신적으로 그들은 증거궤가 그들을 위해 싸우도록 계획하였다(삼상 4:3-9).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했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 즉 두 인도자들은 죽음을 당했다(삼상 4:10-11).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삼상 4:19-22). 그리고 장막은 텅 비게 되었다.

언약궤는 진실로 능력이 있었고, 스스로를 보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투에서 패배시킨 후,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들여놓았다. 그들이 이렇게 한 후, 그들의 우상은 완전히 패배당했다. 결국 언약궤는 블레셋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정복하였다(삼상 5 장).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배시켰지만, 그 작은 언약궤는 이길 수 없었다. … 결국 그들은 골칫거리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을 벳세메스로 보냈다(삼상 6:1-16). 언약궤를 받자마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부주의하게 다루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의해 죽음을 당했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전달자 들을 기랏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갈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기랏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와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여놓았고, 언약궤는 그곳에 이십 년 동안 있었다(삼상 6:12-7:2).

그 상황은 실로 비정상적이었다. 제단이 있는 장막은 실로에 있었지만, 언약궤는 기랏여아림에 있었다. 내용이 그릇과 분리되었고, 그릇은 텅 빈 채로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완전한 회복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가지려면, 우리는 장막인 교회 안에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한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역사에서 이 모든 사건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와 목적만을 위해 일어났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건축물이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 장, 371-3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 장

6/3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삼하 6:12

12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보고가 다윗왕에게 들어가자 다윗이 기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왕상 8:6

6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리, 곧 집의 맨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들었다.

왕상 8:11, 18-19

11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여호와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다.

19 하지만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네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엡 2:13-15, 20

13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언약궤와 장막이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는 적어도 이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건축물에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맞는 사람, 곧 다윗을 찾으셨다(삼상 13:14).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울은 그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 행했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일으키셨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실지로 그의 마음에 있던 첫 번째 일은 언약궤를 돌보려는 것이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 장, 373-3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웃사의 사건과 그로 인한 좌절로 다윗은 언약궤를 오벧에돔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남겨 두었다(삼하 6:1-10). ...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벧에돔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윗은 매우 감동되어서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갔다(삼하 6:11-12). 영적인 축복도 자주 이와 같다.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과를 배웠다. 이번에 그는 언약궤가 수레 위에 실려서 옮겨져서는 안 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그것은 범속한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고 분별되고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어야 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메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대상 15:1-15). ... 반드시 살아 있는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협력하여 언약궤를 목적지까지 운반해야 했다.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최상의 장소인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대상 15:29, 16:1).

다윗은 시온산에 준비해 둔 장막 안에 언약궤를 들였다. ... 이러한 안배로는 아직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어느 날 다윗은 주님의 언약궤를 돌합당하고 견고한 성전을 건축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갈망한다. 첫 번째 시도에서 우리는 완전히 틀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과를 배우고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겨우 절반만 옳다. 우리가 하는 것의 오십 퍼센트는 여전히 틀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시온에서 자신이 선택한 천막에 언약궤를 들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부족함을 용납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본에 따라 만들어진 장막 안에 언약궤를 두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윗은 여전히 완전한 평안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성취한후, 많은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갖지 못한다. 즉, 완전한 만족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옳은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 다윗의 갈망은 확실히 선한 것이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기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대상 28:3).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첫째, 다윗이 전사, 곧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대상 28:3). 오직 평안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평안을 주시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오직 평안 안에서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먼저 건축해 주시고, 그 집에서 그분을 위한 집을 건축할 한 아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삼하 7:1-13, 대상 28:5-6).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근거를 조금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증거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먼저 행하신 것을 그 근원으로 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 대신 재료들(대상 28:2, 29:1-9)과 터(대상 21:18-30, 대하 3:1)를 준비했다. 마침내 그는 건축자인 솔로몬과 모든 돕는 사람들을 준비하였다(대상 28:9-11, 20-21). 결국 이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솔로몬은 보좌에 오를 권위를 받았고 성전을 건축했다(왕상 6:1-2).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 장, 377-38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37 권, 일반 메시지(1), 33 장; 위치만 니 전집, 57 권, 위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5 장

6/4 토요일

아침의 누림

출 40:21, 34

21 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어놓고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34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3:18-21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21:1-4, 10-11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교회 역사의 예시로서, 교회가 바로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거쳐 온 길과 상황을 완전히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역사에는 다섯 가지 주된 방면이 있다.

처음에 장막은 언약궤를 담고 있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 둘은 하나였다.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었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내용이였다.

...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는 언약궤이셨고, 교회는 장막이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장, 381-382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때문에 언약궤는 장막과 분리되었고 장막은 공허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묘사한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이다. ...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와 분리되었고, 교회는 내적 실재가 없이 단지 외적 표현만 있는 텅 빈

그릇이 되었다. ...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이 실재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텅 빈 장막이다.

구약에서 예시하는 세 번째 상황은 장막이 없는 언약궤의 상황이다. 언약궤는 장막을 떠나 있으면서 먼저는 이십 년 동안 ...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삼상 7:1-2), 그런 다음에 석 달 동안 ... 오벧에돔의 집에 있었다(삼하 6:10-12). 언약궤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벧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다. 그러나 장막은 여전히 언약궤와 분리되어 실로에 있었다. 이 세 번째 상황은 훨씬 더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정상이 아니었다. 교회 역사는 2세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오벧에돔이 있어 왔음을 보여 준다. ...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네 번째 상황은 언약궤가 합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이다. 다윗왕은 시온에 장막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윗의 의견에 따라 세워진 장막이었다. 교회 역사는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하다. 아주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은 없이 언약궤 곧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그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둘 장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듯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교회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장막을 세운다’. 즉, ... 그들 자신의 이해에 따라 집회를 세운다. ... 그것은 좋았지만 부적절했다. ... 합당하지 않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러한 네 번째 상태는 ... 절반만 옳았다. ...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평안과 만족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들은 교회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상황은 언약궤가 확대되고 증가된 합당한 장막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합당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편안하게 느낀다.

첫 번째 상태는 완전히 옳지만, 두 번째 상태는 완전히 공허하다. 세 번째 상태는 좋으나 비정상적이며, 네 번째 상태는 절반만 만족스럽고, 다섯 번째 상태는 실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상태이다. ...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더욱이 교회생활을 계속 확대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자!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 장, 382-3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0 장

2022. 5. 30 ~ 2022. 6. 2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84, 86-89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4, 22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 장

6/5 주일

아침의 누림

시 132:1-8, 13-16

- 1 오, 여호와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고통을,
 - 2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능력 있으신 분께 서원하였는지를.
 - 3 “저는 제 집 천막에 들지 아니하고 제 침상 자리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 4 제 눈에 잠을, 제 눈꺼풀에 졸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5 여호와를 위한 한 곳, 야곱의 능력 있으신 분을 위한 장막을 찾기까지.”
 - 6 보아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구나.
 - 7 우리가 그분의 장막에 들어가 그분의 발 받침대 앞에서 경배하리라.
 - 8 오, 여호와님! 일어나시어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드십시오.
-
-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
 -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
 - 15 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 16 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

160. 어떤 축복 권리인가

160. 주는 율법 능가하는 하나님의 간증

- 1 주는 율법 능가하는 하나님의 증거 율법은 주의 축소요 주는 율법 실제 율법은 하나님 묘사 하나님- 설명뿐 주는 하나님 거하는 하나님의 실제.
- 2 율법 가진 언약궤는 주님의 예표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네 나무로 된- 언약궤에 금이 덮-인 것은 인성과 신성 연합된 주를 말함일세.
- 3 참된 장막 주님 안에 하나님 거하니 육체 되신 주님 안에 은혜 진리 넘쳐 하나님 산- 말씀인 주 하나님- 영광 빛 하나님의 산 그림 돼 사랑과 빛 되네.
- 4 주는 하나님 참 성전 하나님 표현해 주 안에 하나님 거해 모든 것 가지고 사탄이 파-괴하려고 사지에- 두어도 주님은 부활 안에서 더 큰 성전 짓네.
- 5 거룩한 성은 주 신부 주 총만 보여줘 이는 주의 증거이니 그 안에 주 거해 하나님은- 그 성의 빛 주님은- 등이니 온 성에 그 빛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
- 6 장막과 언약궤 율법 성전 거룩한 성 모두가 귀한 주님의 그 풍성 말하네 중심도 둘-레도 주님 모두가- 주님뿐 하나님과 사람인 주 맘 다해 사랑해.

악보 / 음악 (한 160 / 영 194)

<http://khymnal.org>